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3

I. 서론

지난 시간 함께 나눈 4장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부모에게 전수받은 지혜를 아들에게 전하는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3장의 내용을 반복하였다. ()가 삶의 중심에 있게 하며 의로운 길과 악한 길,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를 따라 잘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후 5장에서는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행음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이야기하고 음란한 삶을 막아 줄 정상적인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한다. 6장에서는 돈, 게으름, 선과 악에 대해 이야기 한 다음 간음으로 인한 파멸을 경고한다.

이어서 7장에서는 음녀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며, 그녀와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설명한다. 8장에서는 지혜가 스스로를 천상의 존재로 () 하여 그 가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9장은 1-9장까지 잠언 서론의 결론 부분으로 지혜와 음녀에 대해 대조하고 있다. 9장에서 발견되는 세 유형의 사람들은 첫째, 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자들, 둘째, 어리석지만 지혜의 교육으로 교정 될 수 있는 사람들, 셋째, 개선의 가망성이 없는 () 이다. “지혜와 음녀의 초청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잠언의 서론부분을 정리하고 있다.

II. 본문

7. 지혜자가 경계해야 할 일들(잠 7:1-27)

[표제 :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1~27절)]

앞 장에서 음녀와 간음하면 재산과 명예와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에서는 음녀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며, 그녀와의 간음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묘사한다. 본장은 각각 네 절씩으로 이루어진 도입부(음녀로부터 지켜주는 지혜: 1-4절)와 결론부(음녀를 멀리하는 지혜: 24-27절)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1) 음녀로부터 지켜 주는 지혜(1-5)

본 단락은 다른 데서도 발견되는 익숙하고도 공식적인 문구들로 시작한다. “네 마음에 판에 새기라”(3절)와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2절)는 각각 3:3과 4:4에서도 같은 의미의 문구로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 음녀와 이방 계집에게서 지켜 줄 것이라는 가르침(5절)은 2:16과 6:24에서도 나온다. 지혜의 말씀을 반복하여 이야기하며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을 당부하는 이유는 음행의 유혹이 그만큼 강렬

하기 때문이다.

(1)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1절)

- 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 ②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눈동자’는 매우 연약한 부위이기에 항상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반지와 같은 일상적인 장식을 말하는데, 혼인의 증표인 결혼반지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부임을 나타내는 증표로 삼으라는 것이다. 또한,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중요한 문서를 목판이나 금속판에 새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평생 동안 묵상하며 ()하라는 명령이다.

***눈동자는 ‘보는 것’과, 손가락은 ‘행동하는 것’과, ()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과 연관된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 몸과 장기를 동원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혜롭기를 가르치고 있다.

③ 지혜에게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친족이라 하라

***‘누이’란 사랑하는 자(아내)를 가리키는 애칭이다. 지혜는 순수하고 신실한 사랑의 대상인 ()와 같은 것이며 ‘음녀’나 ‘이방 계집’과는 대조를 이룬다. ‘친족’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통찰, 판단력)을 가까이 하라는 의미이다.

④ 그리하면 너를 지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을 것임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딤후 2:22)라고 경계했으며 시편 기자는 청년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이 그 ()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다(시 11:9). 그 이유는 ❶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명확히 분별하게 해주기 때문이며, ❷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이다.

2) 음녀에 미혹된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실패(6-23)

아버지는 지혜를 가까이 하면 지혜가 분명 그를 음녀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본 단락에서는 한 이야기를 통해 아들에게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집의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목격하게 된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 남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을 말한다. ‘젊은이’라는 말도 경험이 부족하여 유혹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자발적으로 죄에 노출되었으며, 노련한 ()고 만다.

(1)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한 젊은이가 제 발로 음녀를 찾아가는 것을 목격함(6-9)

- ① 한 젊은이가 음녀가 사는 집 쪽으로 감

****어리석은 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이 많은 거리를 지나 사람이 없는 은밀한 장소를 찾아 배회함. 이는 음행의 범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임.**

②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이 젊은이의 문제는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배회했다는 것이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은 ‘어두움’을 말하며 ()을 상징한다. 동시에 파멸을 가리킨다.**

(2) 음녀가 젊은이를 맞이함(10-12)

①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함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은 매춘하는 옷을 입은 창녀 또는, 이방 신전의 창녀를 말한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남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을 감각적인 성적 해소의 도구로 여길 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②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함

③거리,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임

****그녀에게는 집이 있지만 ()은 없다. 자신의 성적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대상을 찾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비참한 ()뿐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3) 음녀의 간교한 술책(13-21)

①음녀가 젊은이를 붙잡고 입 맞추며 애정공세를 함

②“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14절)

****“화목제를 드렸다”. 음녀는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으며, 혹시 죄를 지어도 나중에 또 화목제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화목제라는 거룩한 의식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③같이 즐길 자를 찾다가 이 젊은이를 만났다고 함

④그녀의 침대는 좋고 화려한 이불로 덮여 있고

⑤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음

****음녀는 최음용 향료로 젊은이를 자극한다. ❶몰약: 아라비아가 원산지인 몰약은 발삼 나무의 건조 수액으로 만든 것으로 강한 특유의 향이 있으며, 거룩한 관유의 재료, 여인의 몸단장, 시체의 부패 방지에 사용되었다. 본문에서는 ()의 상징으로 쓰였다. ❷침향: 인도가 원산지이며 백합과의 관상용 식물의 잎에서 짜 낸 즙과 그 뿌리를 말려서 만든 것으로 향료로 사용되었다. ❸계피: 인도가 원산지이며 약재와 향료로 쓰였다. 이 세 가지 향료는 먼 이국에서 수입되었던 것으로 값비싼 것이었으며, 부유한 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 ⑥그러므로 아침이 될 때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즐길 수 있다고 함
- ⑦현재 남편이 집에 없으며
- ⑧‘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 후에’ 집에 돌아올 것임
- ⑨음녀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함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이다. 그러나 남편이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젊은이를 설득한다. 남편은 돈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보름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하며 젊은이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죄는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❶젊은이는 자기 집을 떠나 거리를 떠돌았고, ❷여자는 집에 있지 않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정욕을 채울 사람을 찾았으며, ❸이 여인의 남편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

(4) 마침내 음녀를 따라간 젊은이의 비참한 결말(22-23)

- ①젊은이가 음녀를 따라감
- ②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 ③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음

***‘소’는 가장 힘센 가축이지만,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도수장(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젊은이는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어 치명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됨, ‘쇠사슬에 매이러’에서 ‘쇠사슬’을 ‘사슴’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덮에 걸려든 사슴처럼 눈앞에 있는 덮을 모르고 먹이를 먹으려다가 울가미에 걸려드는 모습을 나타낸다. 안타깝게도 음행하는 자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 없이 행동하다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된다.

- ②결국 젊은이는 파멸에 이름
- ③화살이 간을 뚫게 되리라
- ④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이 생명을 잃게 됨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간’은 슬픔과 고통스런 감정의 처소로 나타나며 때로는 ‘심장’과 동일하게 쓰이기도 했다. 화살이 간을 뚫는다는 것은 음행의 결과에 대한 보응으로 ()과 죽음을 의미한다. 누가 화살을 쏘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여자가 죽이려고 유인했을 수도 있고, 이 여인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어떻게 죽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다.

3) 음부의 길과 직결된 음녀의 길에 대한 마지막 권고(24-27)

앞 단락에서는 한 개인의 음행 사례를 생생하게 묘사한 반면에, 본 단락은 1-4절에서 말한 권고의 말을 다시 한 번 반복하며 음행 문제에 대한 결론을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1)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24절)

***‘이제’: 이는 앞의 경고를 강조,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는 말

***‘아들들아’: 1절에서는 ‘내 아들아’라는 단수로 표현하였으나 여기서는 ‘아들들아’라는 복수로 그 권고의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음행의 범죄가 어리석은 한 젊은이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빠지기 쉬운 () 것임을 보여 준다.

(2)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25절)

***‘음녀의 길’이란 () 추구에 혈안이 되어, 기만적이며, 비이성적이며, 불안정하며, 여호와 신앙을 무시하고, 불신이 가득하며, 공동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길이다. 그 길로 치우치지 말며 미혹되지도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그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상하여 었드러졌으며, 그녀의 집은 스올의 길임(26-27)

- ①‘상하여 었드러지게 함’: 음녀는 한 젊은이를 유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은 유혹하여 죽음이 이르게 했다.
- ②‘스올의 길’, ‘사망의 방’: 그녀는 자신의 집을 흡족한 쾌락을 즐기는 곳으로 소개했지만, 사실상 그 집은 죽음으로 이끄는 통로이며, 그 끝은 곧 ‘사망의 방’ 즉, ()이다.

***본 단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❶지혜자는 그의 마음을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❷음행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8.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지혜(잠 8:1-36)

[표제 : 지혜와 명철 찬양(1~36절)]

1-7장에서 지혜의 대변인은 현자, 스승, 또는 아버지인 반면에, ‘지혜의 자서전’이라고 불리는 본장은 지혜가 스스로를 1인칭의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혜를 ()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회가 지혜를 신격화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지혜를 하나님의 ()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에 등장하는 지혜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장은 도입부(1-3절)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4-11, 12-21, 22-31절) 그리고 결론부(32-36절)로 구성된다.

1) 인생을 향한 지혜의 간곡한 초청(1-5)

-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1절)

***지혜를 소개하는 1-3절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봄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지혜가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을 찾고 부른다. 음녀는 어두운 밤에 자

기 집의 비밀스러운 곳에서 어리석은 자를 유혹했는데, 지혜는 자신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리며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혜택을 받도록 한다.

(2)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 ①“길 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위해 분주히 왕래하는 곳, 공개된 곳
- ②“높은 곳”: 성(도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쉽고 귀에 들리기 쉬운 곳
- ③“네 거리”: 순종과 불순종, 지혜와 미련함, 영과 육신, 믿음과 불신앙, 선택의 기로에서 들리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4절)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지혜는 성별, 신분, 빈부, 학식, 나이, 품격 등 차별적 전제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 개방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로 우심과 공평하신 속성에 따라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혜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말한다.

(5)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5절)

**“어리석은 자들” →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는 자, “미련한 자들” → 이성적으로 (), 음녀는 미련한자들의 어리숙함을 희생제물로 삼았지만, 지혜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에게도 온전한 치유를 주고 지혜를 얻게 한다.

2) 지혜의 위대한 가치 선언(6-21)

지혜는 자신의 말을 네 가지 적극적인 것, 세 가지 소극적인 것 등 일곱 가지로 묘사한다. 네 가지 적극적인 것들은 ‘선함, 정직, 진리, 의’이다(6-8절). 세 가지 소극적인 것들은 ‘악을 미워함, 굶은 것이 없음, 패역한 것이 없음’이다(7-8절). 10, 11절에서 지혜는 자신의 가르침이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함을 강조한다. 이처럼 지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은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

(1) 진리와 공의에 입각한 지혜의 진실성(6-9)

①“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6절)

적극①‘선함’: 왕이나 지도자와 연관되어 사용하는 단어로 ‘고귀함’, ‘권위’를 말함
적극②‘정직’: ‘진실’하고 ‘올바름’을 뜻하며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임

②“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7절)

적극③(): ‘꾸준함’과 ‘성실함’, ‘믿을 만한 것’

소극①(): 악은 진리와 대조적인 것, 하나님이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는 것

③“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굶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8절)

- 적극④‘의’: ‘옳은 것’과 ‘정확한 것’, 도덕적 의미에서 옳바름
 소극②‘굽은 것이 없음’: ‘굽은 것’은 정직과 반대되는 것, 복잡하고 굴곡이 있는 것
 소극③‘패역한 것이 없음’: ‘패역한 것’은 왜곡되고 꼬인 것, 거짓되며 기만적인 것
 ④이러한 사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잘 아는 것임

(2) 세상 보화보다 뛰어난 지혜의 고귀성(10-11)

- ①지혜의 훈계와 지식은 ()보다 더 귀함
 ②그러므로 은 대신 훈계를 받고, 금보다 지식을 얻어야 함
 ③지혜는 ()보다 나으며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함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든, 무슨 일을 이루든 하나님의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지혜는 인생의 영원하고 ()을 위해 가장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다.

3) 지혜의 가치와 역할: 역사시대(12-21)

본 단락은 지혜의 과거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정자들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며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와 영예의 복을 부여하는 지혜의 명철과 힘을 설명한다.

(1)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지혜의 강직성(12-13)

- ①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음

**주소를 삼았다는 것은 함께 거한다는 것으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혜와 동격으로 여겨지는 ‘명철(사려 깊음)’, ‘지식’, ‘근신(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됨.

②“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13절)

**①()’은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죄, ②‘거만’은 마치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자들을 내려 보듯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 ③‘악한 행실’은 문자적으로 ‘악의 길’을 가는 사람, ④()’은 진실이란 찾아볼 수 없고 왜곡과 거짓을 일삼는 입. 이러한 악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이 네 가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2) 지도자들에게 필수적인 지혜의 유용성(14-16)

- ①지혜에는 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이 있음

**①‘계략’은 신중한 조언이나 충고를 말하며, ②‘참 지식’은 구체적인 도움과 인도로 성공을 안겨주는 것, ③‘명철’은 지혜의 한 속성으로 판단력을 의미, ④‘능력’은 힘과 추진력을 뜻하며 대적을 맞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

이나 자질을 말한다.

- ②지혜로 인해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 ③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림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려면 지혜는 필수적인 것이다.**
()는 지혜에서 시작되며 서로 분리될 수 없다.

(3) 찾는 자에게 열려 있는 지혜의 신실성(17)

- ①“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17절)

****지혜는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항상 사람을 찾는 지혜는 그를 찾는 사람을 환영할 것이며, 지혜와 찾는 자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면 그 사랑의 상호성이 인격적 교류로 이어지게 된다.**

(4) 풍요로운 물질을 보장하는 지혜의 유용성(18-21)

- ①지혜로운 사람은 부귀와 장구한 ()를 얻을 수 있음
- ②지혜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순은보다 나으며
- ③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
- ④이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공간을 채우게 하려 함임

****‘부귀’는 재물의 풍성함으로 다른 이들을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다. ‘장구한 재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물’, ‘대대로 상속되는 재물’을 의미한다. 재물만을 추구할 때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 ()를 추구하는 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얻게 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와 공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들의 공간’:** 일차적으로는 물질을 보관할 지상의 창고를 뜻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창고로도 이해할 수 있다.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세상의 다른 어떤 보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다.

4) 지혜의 가치와 역할: 창조시대(22-31)

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창조하셨음을 밝히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12-21절에서 주어는 ‘지혜’ 자신이었는데 22절부터는 ‘여호와’로 바뀌며 주제를 전환한다. 먼저 22-26절에서는 지혜의 기원을 설명하며 지혜를 여호와에 의해 존재하게 된 매우 피동적인 존재로 설명한다. 그런 후에 27-31절에서는 창조 때 지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과 창조의 기쁨을 함께했던 존재임을 밝힌다.

(1) 창조 이전 지혜의 선재 강조(22-26)

- ①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를 가지심
- ②지혜는 만세 전, 태초,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음

③바다, 큰 샘, 산, 언덕이 생기기 전이었으며

④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임

****지혜는 세상 만물(바다, 큰 샘, 산, 언덕, 땅, 들 등)과 같은 예사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존재임을 밝힌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2) 창조시 지혜가 누린 동역의 기쁨 강조(27-31)

앞 단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자기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증언한 지혜가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 강조점이 창조 전에 존재했다는 것에서 창조와 함께했다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①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②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실 때

③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을 다스리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④지혜 자신이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음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혜가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 곁에서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지혜의 각별한 친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⑤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음

****‘사람이 거처할 땅’이란 창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세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혜는 창조의 순간들을 목격하며, 사람의 거처와 사람이 창조되는 대목에서 감격적인 기쁨을 표했으며, 지혜는 하나님과 ()과 함께 하며, 하늘의 지혜를 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로서의 역할을 기뻐함.**

5) 지혜의 결론적 촉구와 경고(32-36)

(1)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32절)

****지혜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들들에게 보편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가 제시하는 도,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늘의 ()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엡 1:3, 요삼 1:2).**

(2)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33절)

(3) 지혜를 듣고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음

****항상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날마다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나 지혜를 환영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배움과 깨우침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도태되지 않고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다.

(4) 지혜를 얻는 자는 ()을 얻고 여호와께 ()을 얻을 것임

****지혜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5)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36절)

****지혜는 자신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마지막 호소를 하고 있다. 지혜를 사랑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지만,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사망이며 파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본장의 내용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❶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17절). ❷ 하나님의 지혜는 언약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적으로 간구함으로써 ()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35, 36절).**

9. 지혜와 어리석음의 궁극적 차이(잠 9:1-12)

[표제 : 지혜와 어리석음(1~12절)]

본장은 잠언의 서론 부분인 1-9장의 요약이자 결론부분이다. 첫 번째 부분(1-6절)은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다. 두 번째 부분(7-12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한 후 “()”이라는 본서의 핵심 내용을 선포한다. 세 번째 부분(13-18절)은 지혜와 성격이 전혀 다른 미련함을 의인화하여, 미련한 여자에 대해 묘사함으로 첫 번째 부분과 대칭을 이루고 있다.

1) 지혜의 초대(1-6)

본 단락에서 지혜는 의인화되어 집에서 연회를 베푸는 자로 묘사된다. 그런데 그 연회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이다. 그들은 연회에 참석하여 지혜자가 제공하는 음식물들을 먹게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음식물들을 섭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혜자의 집에서 지혜와 ()을 배우는 데에 있다.

우리는 본 단락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여 먹일 수 있을 만큼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1) 지혜의 거처와 잔치의 준비(1-2)

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음

****지혜의 집은 지혜가 지닌 ()과 존엄성을 상징한다. ‘일곱 기둥’이란 여러 해석이 있지만, 바로 앞 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가 주님 곁에서 모든 것을 본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처럼, 지혜도 자기 집을 일곱 기둥으로 완벽하게 지었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 사람들도 결코 실망하**

지 앓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②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

*고기와 포도주는 모두 내적, 외적 삶의 유익한 지침들이 되는 지혜의 속성을 상징한다. 혼합한 포도주란 꿀이나 좋은 향을 섞은 포도주, 또는 마시기 편하게 물을 섞어 독하지 않게 만든 포도주를 말한다. 좋은 고기와 술로 준비한 잔칫상 비유는 지혜가 사람의 삶과 ()을 살찌우게 한다는 뜻이다.

(2) 여중들을 통한 지혜의 간곡한 초청(3-6)

① 여중을 보내 성중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부름

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5절)

②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6절)

*잔칫상이 준비되자 지혜는 여중들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한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주 초청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이다. ‘()’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 분별력과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를 말하며 ‘지혜 없는 자’는 ()를 말한다. 이들이 지난 과오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돌이키면 지혜의 잔칫상에 참여해 기쁨을 나눌 수 있다. 지혜는 가장 절실하게 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고자 한다.

2)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7-12)

본 단락은 지혜(1-6절)와 음녀(13-18절)의 초대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잠언이 저작된 이후 훗날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몇몇 히브리어 사본과 70인역(LXX)에서는 본 단락의 몇몇 구절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단락은 1-6절과 13-18절을 서로 연결시켜주며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내용 구성 또한 통일성을 보여준다. 7-9절은 거만한 자와 지혜자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거만한 자는 지혜 전달자를 거부하고 모욕하지만, 지혜자는 그 메시지를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거만한 자는 자신의 거만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웃음과 미움을 자초한다는 점에서 비참한 인생이다. 반면에 지혜자는 더욱 지혜로워지기를 갈망하므로 지혜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인다.

(1)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힘(7-9)

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 너를 미워할까 두려움

②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 너를 사랑하리라

③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임

④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 그의 ()이 더하리라

(2) 지혜의 초청에 대한 상반된 반응과 그 결과(10-12)

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10절)

②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할 것임

③ 네가 만을 지혜로우면 →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임

㉔ 네가 만일 거만하면 →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임

***“홀로 해를 당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공동체를 섬기려 하지만, 거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 소외감을 가증시킨다.

3) 미련한 여자의 공개적 초청과 유혹(13-17)

형식상 1-3절에 언급된 지혜의 초청과 병행으로 쓰이면서 내용상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13-18절은 파멸의 죽음으로 생을 인도하는 죄악의 간절한 초청을 보여준다. 지혜와 대조적으로 소개된 여인은 13절에서 ‘미련한 여자, 떠드는 여자, 어리석은 여자’ 세 가지로 묘사한다.

(1) 미련한 여인의 초청(13)

- ① ‘미련한 여자’: 음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거만과 오만을 강조하는 표현
- ② ‘()’: 말조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 추구, 도덕적 성품의 불량을 가리킴
- ③ ‘어리석은 여자’: ‘명철’의 반대말로 분별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떨어짐
- (2)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행인들을 부름
 - 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16절)
 - ②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함

***미련한 여인도 지혜처럼 자기 집 문에서, 또한 성읍 높은 곳에서 행인들을 부른다. 그녀도 지혜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들을 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초청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지혜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으라고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유혹한다. 지혜는 귀한 포도주를 준비한 것과 달리,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을 제시한다. 이는 불륜, 음란한 성관계를 가리키며 ‘몰래 먹는 떡’ 역시 육체적인 음란 행위를 가리킨다.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일시적으로 달콤함을 맛볼 수 있겠지만 결국 파멸로 귀결된다.

4) 미련한 여자의 유혹 추종의 결과(18)

- (1) 어리석은 자의 무지
 - ①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 ②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함

***미련한 여자는 불륜과 쾌락이 재미있다고 하며 사람들을 ()로 유혹한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이미 유혹을 당했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만일 이 순간 유혹의 기로에 서 있는 어리석은 자가 그녀를 따라가면, 그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절대 이 여인을 따라가지 않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